

▶ 주제발표 3

질적방법을 이용한 가족의 일상성 연구

양 성 은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1. 가족학의 본질로서의 일상성

일상적 삶이란 의식주를 기본으로 가족의 발달과업이 이루어지는 시간, 공간, 그리고 그 방식으로 구성된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일상성에 대한 관심은 사회학에서 거대이론화(grand theorization) 프로젝트의 효용에 대한 회의와 함께 대두되었다. 모든 사회현상에 대한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해답을 구하고자 시도된 거대이론화 프로젝트는 사회를 비인격화된 힘에 의해 통제되는 실체로 물상화 했으며, 인간의 잠재력과 자율성을 생산양식과 같은 기계적 모델 혹은 기능적 체계와 같은 유기체적 모델로 대체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김종길, 2002). 이처럼 거대이론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면서, 구조적 강제와 기계적 법칙성 대신 구체적인 개인의 활동과 현실의 생활을 이론화 하고자 하는 응전(應戰)이 사회학 분야에서 전개되었다.

가족학에서 일상성 개념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학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학은 초기에 사회학 이론들을 기반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는 “1980년대에 가족학분야에서 사회학의 주도권이 종식(Boss, Doherty, LaRossa, Schumm, & Steinmetz, 1993, p.12)” 되기까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가족학 발달과정에서도 가족의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거대이론을 구축하고자 했던 때가 있었으나, 이러한 시도는 결국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어 현재 완전히 잊혀졌다(Klein & White, 1996, p.55). 오히려 가족학에서는 사회의 하위체계로 가족을 정의하고 가족과 외부체계 간의 교류에 초점을 두던 구조기능주의가 쇠퇴하면서, 점차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이분화가 붕괴되는 경향을 나타냈다(Boss, Doherty, LaRossa, Schumm, & Steinmetz, 1993, p.17). 이는 가족내부의 심리사회적 측면과 외부사회 간의 이분화를 지양하면서, 미시적 접근이 정책적 시사점을 주고 정책적 제안

이 미시적 결과에 의존해야한다는 함의를 반영하는 것이다. 결국 가족의 일상생활을 진부하고, 사소하며,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피상적인 것으로 취급하여 이에 대한 본격적 이론화를 망설이던 입장 대신 현대가족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시적 분석을 통한 일상생활 또는 생활세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부각된 것이다.

거대이론화에 대한 회의와 미시적 접근의 강조는 어쩌면 가족학의 정체성 측면에서 볼 때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가족생활은 잘 의식되지는 않지만 반복되는 특성을 가진 일상생활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성미애, 옥선화, 2002, p. 2). 이러한 가족생활을 연구하는 가족학은 본질적으로 혈연, 입양, 혼인 등의 양식으로 맺어진 구성원들이 어떻게 의식주를 공유하며, 어떻게 아동과 노인에 대한 돌봄노동을 분담하고, 어떻게 애정을 유지하며 성관계를 맺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문제에 대처하는가에 관한 학문이기 때문이다. 가족의 일상성에 대한 관심이야말로 가족학의 본질에 대한 재음미라고 할 것이다.

2. 가족의 일상성 고찰을 위한 질적연구방법

연구자가 전통적인 거대이론에 입각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변인들을 통제하여 인과관계를 밝히거나 그 변화추이를 예측하는 방법은 실증주의적(positivistic) 인식론에 바탕을 둔다. 객관성을 주장하며 과학적 지식을 강조하는 실증주의는 지식구성에 있어서 일차적인 지각의 세계, 다시 말해 생활세계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평범한 개인이 일상에서 무엇을 느끼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최정실, 1993).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는데 단선적인 인과론에 의존함으로써 상호작용의 역동성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통제된 변인에 대한 믿음은 복잡한 현상에서 나타나는 우연성이나 예측불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없애는 한편, 개인의 인지와 정서를 분리시켜 총체적 인간에 대한 이해를 왜곡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또한 자연스러운 일상의 맥락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객관적인 관찰로 수량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간과하며, 연구대상을 집합적 N(sample size)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가족구성원 각자 현상에 부여하는 의미를 파악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실증주의에 대한 신봉은 학문을 개인들의 생활세계로부터 분리시켜 소위 전문가들의 고유영역으로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가족의 일상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가족구성원이 보이는 특정행동의 주관적 의미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석주의적(interpretive) 인식론을 바탕으로 한 질적연구방법이 유용하다고 하겠다. 질적연구방법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일상적이거나 또는 문제가 되는 순간을 기술하며, 이들이 현상에 부여하는 주관적인 의미를 이해하거나 해석하려는데 목적을 두기 때문이다(Denzin & Lincoln, 2000, p. 3). 해석학적 인식론은 “사회현상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제도현상이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규범

의 맥락에서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 p. 66)”는 자각을 출발점으로 한다. 즉, 자연과학을 지배하는 실증주의적 인식론을 사회과학에 적용하려는 시도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다. “객관적 지식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을 던지며, “사회적 현실”의 존재에 회의적이다. 인간은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개별적이고 특수한 지식이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강신태, 1995).

해석학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하는 질적연구방법은 사람들이 삶에 의미를 두는 방식에 관심을 갖는다. 조작이나 통제 대신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현상을 이해하는데 목표를 두며, 그 현상이 발생하는 맥락을 중요시한다. 사람들이 현상에 부여하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현상이 발생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파악해야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협소하게 조작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가설을 구체화하는 대신 발견의 논리를 지향하는 귀납적 분석을 따른다. 이러한 질적연구방법을 가족학에 적용하면, 기존 이론에서 도출된 가설로 가족현상을 설명하는 대신 가족의 구체적인 상호작용에 먼저 주목하여 이에 대한 의미를 끌어내게 된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일상생활이 사실상 가족 내 각 주체에게 독특한 체험이며, 가족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속에 주관적인 의미가 부여된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질적 방법이야말로 가족 일상성을 연구하는데 유용한 연구방법이라고 인정하게 된다.

최근 3년간(2000~2003) 가정학 분야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4종을 분석한 박영숙, 최혜선, 윤인경, 이승신, 이주리(2004)에 따르면, 선정된 학술지 4종에 실린 가족학 논문 총 308편 중 약 70%가 설문조사와 실험을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였으며, 문헌연구가 약 16%, 그리고 면접을 실시한 연구가 약 13%에 달했다. 질문지나 실험 대신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모든 논문이 실증주의적 인식론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국내 가족학 논문 중 해석학적 인식론에 입각한 질적연구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소수일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가족학 분야에서 질적연구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철학적 지향이 부재하다(천혜정, 2004)는 비판을 고려할 때, 가족 일상성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식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하는 질적연구방법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된다 하겠다.

3. 질적방법을 이용한 가족 일상성 연구사례

(1) 보편적 일상활동

Rosenblatt, P. C. (2006, July). Two in a bed: The social system of couple bed sharing. New York, NY: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본 연구는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부부가 어떻게 잠자리를 같이 하는가를 탐색한 것이다. 수면(睡眠)이라는 인간의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생리활동에 주목하여, 부부가 매일의 잠자리를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며 그 일상적 활동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미국 중서부에 거주하는 21세~77세 사이의 성인 88명(부부 42쌍 + 개인 4명)이다. 2시간 이상의 개별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근거이론(grounded theory)에 의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매일 한 이불을 덮고 자는” 행위 속에 포함된 복합적인 의미를 드러냈다. 부부가 어떻게 서로의 수면양식에 적응하고, 어떻게 물리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며, 어떤 대화를 잠자리에서 나누는가와 같은 기술(記述)적 분석 뿐 아니라 부부간에 잠자리를 함께 한다는 것이 스트레스로부터의 회피, 안전함, 안락함, 심지어 종교적 의미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간의 신뢰, 애정, 친밀감, 성적행위와 같은 관계적 측면도 부각되었다. 연구자는 부부가 잠자리를 함께 한다는 당연한 행위 속에 담긴 주관적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일상의 체험이 지닌 심층적 의미와 가치, 그리고 사회적 규범과의 관계를 밝혔다.

(2) 일상생활과 규범적 스트레스

양성은(2005). 고 3 수험생 어머니의 입시준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49-61.

본 연구는 한국가족의 발달주기에서 규범적 스트레스로 개념화되는 고 3 자녀의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수험준비 과정에서 고 3 가족이 겪는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를 획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참여자는 준거적 선택방법에 따라, 고 3 수험생이 있는 핵가족의 40대 중반 어머니 19명으로 선정되었다. 자료수집을 위해 Holstein과 Gubrium의 “액티브 면접법(active interview method)”을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중심주제분석법(theme analysis)에 의거해 분석되었다. 심층면접 기간을 수능시험이 실시되기 2주 전~시험 전날까지로 제한함으로써, 연구참여자들이 겪고 있는 수험생 어머니로서의 절정경험(peak experiences)을 “지금-여기(here-and-now)”의 관점에서 묘사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 어머니들은 고 3 자녀와의 동일시를 통해 정서적 밀착을 나타냈다. 이는 어머니의 일상생활에 그대로 반영되어 가사노동, 수면시간, 심지어 부부 성관계까지도 고 3 자녀를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모든 것을 수능 끝난 뒤로 미뤄놓은” 경직된 상황 속에서 어머니들은 고 3 자녀만큼 자신도 심리적, 육체적 고생을 해야 한다는 강박적 태도를 보이며, 그렇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표시했다.

둘째, 연구참여자 어머니들의 관점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물리적 부재와 심리적 거리감으로 설명된다. 어머니와 고 3 자녀가 수험기간을 통해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과 달리

아버지는 오히려 가족외체계 활동에 몰입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자녀와 피상적인 상호작용을 해오던 아버지들은 수험생이 된 자녀에게 직접 개입하면서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아내를 통해 간접적으로 고 3 자녀에게 개입하거나 또는 아내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 개입이나 위임은 어머니들에게 역할과중을 야기하며 부부간의 갈등 가능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 어머니들은 수험생활을 통해 자신의 기대와 자녀의 실제 능력간의 괴리를 경험하며, 점차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자녀의 실제 학업성취 능력을 인정하고 자신의 기대를 수정하는 일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며, 실망, 좌절, 분노, 슬픔 등의 감정이 동반되는 힘든 적응임을 고백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 연구참여자들은 자녀가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하기를” 바라는 궁극적인 심리적 합의점에 도달하게 된다.

(3) 일상생활과 비규범적 스트레스

양성은(연구진행 중). 환자가족 연구.

본 연구는 가족구성원이 위급한 질환으로 입원한 위기상황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환자보호자가 된 가족들은 간병을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에서 지냄으로써 일상적 의식주에 불편을 감수해야하며, 자녀양육, 가사, 직업 등의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환자의 사망가능성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에 대처해야하며, 보호자로서 병원조직에 순응해야하고, 병원비를 지불해야하는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된다. 본 연구는 가족들이 환자를 간병하면서 보호자로서 어떠한 경험을 하며, 병원이라는 비밀상적 맥락에서 어떻게 나름대로의 일상적 상호작용을 획득하는지에 관한 통찰을 제공하고자 한다.

4. 질적방법을 이용한 가족 일상성 연구의 전망

가족 일상성 연구는 그 주제 측면에서, 가족의 일상적 활동에 초점을 두고 여기에 어떠한 주관적 의미가 부여되는지 탐색하려는 노력이 지속될 것이다. 한편, 가족의 일상성이 깨어진 비밀상적 상황 또는 위기상황에 주목함으로써 오히려 가족 일상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일상적 활동의 의미를 도출할 때 이것이 연구참여자 개인에 국한되는 피상적인 사적 기술에 그치지 않도록 사회적 규범 및 문화적 가치와 연계시키려는 해석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가족 일상성 연구의 분석단위 측면에서, 대부분의 연구가 가족구성원 개인을 분석의 단위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과연 우리 가족의 일상이 나의 일상과 동일한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가족 전체를 분석의 단위로 다루려는 시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가족의 합의나 가족공동의 결정이 갖는 신화적 오류를 깨는 작업, 즉 동일한 가족현상을 어떻게 다르게 지각하는가에 대한 관심 역시 가족 일상성 연구를 위해 필요한 연구주제라고 하겠다.

가족 일상성에 대한 연구는 결국 가족구성원들이 의식주를 기본으로 공동의 발달과업을 이루어기 위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그 과정에서 각 구성원이 어떠한 체험을 하고, 그 체험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를 고찰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족 일상성을 고찰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서 해석학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하는 질적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이 앞으로 한국 가족학의 일상성 연구를 위해 이론적 측면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 강신택(1995). *사회과학연구의 이해*(개정판). 서울: 박영사.
- 김종길(2002). 거대이론의 위기와 일상성의 재발견: 현상학적 행위이론의 비판적 재검토. *사회과학연구*, 7, 67-92.
- 박영숙, 최혜선, 윤인경, 이승신, 이주리(2004). 세계화시대와 가정학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2), 47-67.
- 성미애, 옥선화(2002). 가족 연구에서의 유형화 연구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40(2), 1-13.
-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2004).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양성은(2005). 고 3 수험생 어머니의 입시준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49-61.
- 천혜정(2004). 가족학 분야에서의 질적 연구 경향 및 방법론의 문제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161-173.
- 최정실(1993). *교육철학에세이*. 서울: 서광사.
- Boss, P. G., Doherty, W. J., LaRossa, R., Schumm, W. R., & Steinmetz, S. K. (Eds.), (1993). *Sourcebook of family theories and methods: A contextual approach*. New York: Plenum Press.
- Denzin, N. K., & Lincoln, Y. S. (2000).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2nd ed.). Thousand Oak, CA.: Sage.
- Douglas, J. D. (1980), Introduction to the sociologies of everyday life. In J. D. Douglas, P. A. Adler, P. Adler, A Fontana, C. R. Freeman, & J. A. Kotarba (Eds.), *Introduction to the sociologies of everyday life* (pp. 1-19). Boston: Allyn & Bacon.
- Klein, D. M., & White, J. M. (1996). *Family theories*. Thousand Oak, CA.: Sage.
- Rosenblatt, P. C. (2006, July). *Two in a bed: The social system of couple bed sharing*. New York, NY: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Sandywell, B. (2004). The myth of everyday life: Toward a heterology of the ordinary. *Cultural Studies*, 18(2/3), 160-180.